

연변병원, 2명의 북경 관광객 죽음의 문턱서 구해

대도시와 동등한 수준의 응급의료봉사 제공할 수 있어

“마나면 타향 연결까지 와서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줄 몰랐어요. 연변의 응급치료 속도와 수준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생명을 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월 1일, 퇴원 수속을 마친 북경 관광객 양선생은 연변대학부속병원(이하 ‘연변병원’) 심혈관의학중심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며칠전 북경에서 연길로 관광을 온 70여세의 양선생과 역시 북경에서 온 43세의 관광객 마녀사는 잇달아 심근경색이 돌발했으나 연변병원 심혈관의학중심의 신속한 구조에 힘입어 죽음의 문턱을 무사히 벗어났다.

연길은 실제 행동으로 따스하고 안전한 도시임을 관광객들에게 생생히 증명해보였다.

◆ 신속한 응급치료로 생명 구해

7월 28일, 처음 연길에 온 양선생은 오전 8시경에 갑작스런 가슴통증으로 연변병원으로 급송됐다. ‘시간은 곧 생명’이었다. 연변병원 심혈관의학중심 주임의사 허문호 치료팀은 즉시 ‘급성 흉통 구급 룰렛통로’를 가동했다.

응급실 도착부터 진단, 관상동맥 중재시술(PCI)까지 모든 과정이 신



북경 관광객 양선생의 건강 회복을 축하하고 있는 의료진 성현무 주임(가운데)과 허문호 주임의사(오른쪽 첫번째)

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됐다. 최신식 DSA 혈관조영장비 등 첨단 설비로 막힌 심장혈관을 성공적으로 뚫었다. 오전 9시가 넘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양선생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같은 날 저녁 10시경, 연길에 놀러온 북경 관광객 마녀사도 갑작스런 가슴통증으로 병원에 실려왔다. 24시간 대기중인 심혈관의학중심 의료진은 즉시 신속히 대응해 룰렛통로를 재가

동했다. 밤 11시경 수술실 등이 켜지면서 분초를 다투는 ‘죽음의 신’과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끝내 혈관을 무사히 뚫어 마녀사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했다.

◆ 경각을 다투는 일본일초... 다학과 협력이 핵심

허문호 주임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은 시간과의 전쟁이다. 응급의학과,

심혈관의학중심, 중재진료실(介入诊疗室) 등 여러 학과가 협력해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혈관을 뚫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심혈관의학중심 성현무 주임은 “이번 사례를 통해 관광도시로서의 연길의 응급의료 능력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연변은 손님을 열정적으로 대하는 도시 분위기와 독특한 매력이 있으며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심혈관팀이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북경, 상해 등 어디서 오신 분이든 연길에서 심혈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도시와 동등한 수준의 응급의료봉사를 제공할 수 있음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두 환자 모두 상태가 호전됐는데 양선생은 8월 1일에 순조롭게 퇴원했고 마녀사도 8월 2일에 퇴원했다. 이들은 “치료 효과도 높고 의료인들도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줬다. 연변병원의 빠른 치료 효과와 의료진의 전문성과 책임성에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들의 긍정은 연변병원 의료진의 뛰어난 능력에 대한 최고의 칭찬으로 되었다.

/ 클리닉기자 / 사진 류비비



연변 5개 변경현(시)에 600여명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파견

2025년 연변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근무전 강습 행사가 3일부터 이틀간 도문 등 연변의 5개 변경현(시)에서 개최된 가운데 600여명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강습에 참가했다.

공청단연변주위에서 주최한 이번 강습은 새로 모집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연변의 기본 상황을 충분히 료해하고 안전 의식과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며 일터에 도착한 후 빠르게 적응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자원봉사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강습은 도문시를 주회의장으로 하고 훈춘시, 룡정시, 화룡시, 안도현 등에 분회의장을 설치해 이틀간 연변의 5개 변경현(시)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습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연변의 현황, 산업 발전, 중화민족공동

체의식 확고히 수립,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주제의 전문교육을 받으며 봉사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힘을 쌓았다.

개막식에서 참가자들은 연변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계획 ‘위국수변’ 홍보 영상을 시청한 뒤 자원봉사자 대표 2명이 결의를 다졌다.

강습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은 “이번 강습을 통해 기초사업을 더욱 깊이 료해하게 되었다. 배운 지식을 실천에 옮기고 실제 행동으로 기여, 우애, 협력, 진보”의 자원봉사정신을 실천해 연변의 경제사회발전에 청춘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다짐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자원봉사자들은 강습 과정을 마친 후 연변의 5개 변경현(시)에 배치되어 1~3년간의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

/ 리전기자



안도현 고성촌 시골로인대학, “늙어도 배움은 즐거워!”



로인들이 한획 한획 정성껏 글씨를 쓰고 있다.

안도현 만보진 고성촌에서는 매주 마다 은발의 학생들이 어김없이 마을 로년대학으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수업실에 들어서는 이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하다. 글자를 익히고 쓰던 데로부터 스마트폰 조작에 이르기까지, 건강관리로부터 노래와 춤에 이르기까지, 맞춤형으로 준비된 수업은 로인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주고 ‘행복한 석양생활’을 선사하고 있다.

글쓰기 수업시간, 69세의 장계지(张桂芝)가 선생님의 지도 아래 한획 한획 정성껏 글씨를 쓰고 있다. “어릴 때 집이 가난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해 이름자도 쓸 줄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쓸 뿐만 아니라 게시판의 공지 사항도 읽을 수 있어 생활이 한결 편리해졌다. 로년대학에는 장로인처럼 배움에 목마른 로인들이 많은데 최고령은 82세, 최연소는 69세이다.

“로인들을 가르치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65세의 양계방(杨桂芳)은 과

거에 시골 교원이었는데 지금은 로인들을 위해 매일 노래와 춤을 가르치고 있다. 고성촌 로년대학의 모든 수업은 무료로 진행되며 매주 정해진 시간에 수업이 열린다. 또한 시기별로 학습 내용을 조정해 실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성촌에 뿌리내린 이 로년대학은 가장 소박하지만 진실된 방식으로 마을 로인들의 정신적 터전이 되고 있다. 수업실에서 사각사각 들리는 글 쓰는 소리, 음악실에 울려 퍼지는 노래소리, 스마트폰 화면을 탐구하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 건강강좌를 들을 때의 진지한 표정... 모든 순간이 ‘늙어서도 배운다’는 삶의 지혜를 말없이 전하고 있다.

배움의 기쁨으로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로인들, 로년대학은 이제 마을 로인들의 동력소가 되었다. 해지는 고성촌에 로년대학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지는 시간, 시골 로인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을 채운다.

/ 리전기자



“무상헌혈, 작은 관심이 위험에 처한 생명을 구한다”

— 연변주적십자중심혈액소와 연길시 하남가두, 건군절 맞이 무상헌혈 활동 개최

최근, 연변주적십자중심혈액소는 연길시 하남가두와 손잡고 건군절 맞이 무상헌혈 활동을 개최했다.

하남가두 ‘세가지 신조직(신경조직, 신사회조직, 신취업구체)’ 소속 참가자들이 하남가두관사처를 방문해 헌혈 주의사항을 료해한 후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차례대로 헌혈차에 올라 혈액검사를 받고 무상헌혈을 했다. 이들 속에는 보석판매일군이 있는가 하면 부동산관리회사 담당자도 있었다. 엄격한 선별검사를 거쳐 최종 헌혈량이 루게 1,800밀리리터에 달했다.

무상헌혈을 마친 참가자들은 “비록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절을 맞아 이런 방식으로 조금이나마 사회에

기여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아주 매우 기쁘다. 헌혈이 헌혈자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견지할 타산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연변주적십자중심혈액소 선전일군 조효단은 “현재 주내 혈액 재고량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서 병상의 환자들이 수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혈액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관련 사업일군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리전기자



27명의 70대 조선족 로인, 대련서 장고 열풍



최근,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의 27명 여성 회원들이 활기찬 로년 여가생활을 위해 장고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리영숙과 최봉숙 단장과 함께 회원들은 각자 500여원 상당의 장고를 구

입해 올해 3월초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정기 모임을 이어가며 장고 기본기 연습에 매진해왔다.

평균연령이 71세인 로인들은 중앙절 공연을 앞두고 고향 정서가 담긴 장고 휘호곡 〈고향의 폐목소리〉런

습에 열중하고 있다. 삼복더위에도 젊은이를 못지 않은 열정과 패기로 연습에 람하는 이들의 모습이 주목을 받으며 사회각계의 호평을 받고 있다.

/ 리삼민특약기자

